

『화엄경』에서의 삼매와 깨달음

본각(진영유)

[국문 초록]

본 논문의 주제는 『화엄경』에서의 삼매와 깨달음이다. 화엄에 있어서 삼매와 깨달음의 관계를 논하기 위하여 먼저 각 삼매를 살폈고, 이어서 화엄교학에서의 성불론과 경전에서의 깨달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삼매는 적멸도량회의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삼매를 시작으로 각 회의 근본 삼매와 각 품에서의 부수적인 삼매를 모두 검토했다. 화엄의 심불의 자경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현행원의 수행력을 완성해야 하는데 삼매의 경지는 행원을 성취시키는 근본 토대가 됨을 보았다. 그 이유는 여래의 본원력과 위신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가고, 보살은 삼매를 통하여 여래와 교감을 갖는다. 삼매력 속에 보살과 여래가 동일한 경지에 있게 되고, 불가사의한 세계가 전개되며 보살은 마정수기를 얻고 여래를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능력을 얻는다. 곧 삼매 속에서 여래의 경지를 경험하고 佛果를 향하여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성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삼매를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 현상으로 돌아와서 여래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 실천의 과정이 향포문, 또는 원융문으로 전개되는 것이 화엄의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에 信滿成佛을 시작으로 一念成佛, 疾得成佛, 舊來成佛, 本來成佛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불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화엄경』에서 여래의 위신력과 가피력, 확고한 신심의 중요성, 신구의 3업을 밝힘, 수행자의 해행구족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화엄의 온전한 깨달음은 바로 법계연기를 정확히 깨닫는 것임을 밝혔다. 법계연기의 깨달음은 눈앞

에 펼쳐지는 현상을 그대로 차별 없이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 그대로를 진리로서 완성해 가는 보살도를 의미한다. 이 법계연기의 깨달음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너와 나의 경지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일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진리를 구현하고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재동자가 보현의 몸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보현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제어: 화엄, 삼매, 깨달음, 화엄성불론, 법계연기.

1. 시작하는 말

『般若經』의 근본 삼매는 等持王妙三昧이며 『法華經』의 근본삼매는 無量義處三昧이며 『涅槃經』의 근본삼매는 金剛三昧이다.¹⁾ 『華嚴經』의 대표 삼매는 海印三昧라고 말한다. 대승경전이 삼매의 경지에서 경을 설한 예는 이미 검토되고 있음을 본다.²⁾ 본 논문에서는 총체적으로 화엄의 삼매를 검토하고 깨달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승경전에서의 삼매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며 깨달음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서 삼매를 통한 깨달음과 삼매의 경지에서의 설법 등을 경전 속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화엄의 제3조로 자리매김하는 현수법장은 『탐현기』에서 삼매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삼매는 等持이니, 잠김과 들뜸을 여의었기 때문에 정혜가 균등하여 等이라 하며, 마음이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持라고 이름한다³⁾라고 삼매의 의미를 밝히고

1) 『대반야바라밀다경』(『大正藏』 5, p.2a); 『법화경』(『大正藏』 9, p.2a); 『열반경』(『大正藏』 12, p.753b)

2) 高峰了州, 『華嚴論集』(國書刊行會, 1976), pp.101-183.

3) 『탐현기』(『大正藏』 35, p.155a), 三昧 此云等持, 離沈浮故 定慧均故名等也 心不散故 住一境故名持也.

있다.

II. 『화엄경』과 삼매

1. 각 회의 대표 삼매

제3 「보현삼매품」이 시작되고, 보현보살은 여래의 위신력에 힘입어서 一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三昧에 들었다. 이 삼매의 경지는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 것이며, 우주 법계에 나타난 천차만별한 모든 현상에 걸림 없이 왕래함이 허공과 같은 경지라고 한다. 또한 일체 모든 삼매법과 삼세제불의 지혜광명이 다 이 삼매를 통해서 출생하며 미진수의 불찰과 보현보살과 일체제불이 다 이 삼매 속에 들어간다고 경전은 설명하고 있다.⁴⁾ 다시 말하면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 삼매는 온 우주법계의 모든 현상을 총체적으로 거두어들임과 동시에 표출해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출입자재한 삼매임을 알 수 있다. 구역 『화엄경』에서는 一切如來淨藏三昧이며, 법장은 이를 해석하여, ‘여래의 정장이며 여래가 곧 정장이다. 또한 정장의 삼매이며 삼매가 곧 정장’이라고 하여 여래, 정장, 삼매가 3위 일체임을 밝히고 있다.⁵⁾ 그는 定, 곧 삼매에 드는 이유는 증득한 경지가 아니면 설하지 못하고, 가피를 받기 위함이며, 무리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삼매에 들어감을 보인다고도 한다.⁶⁾ 여기에서 증득한 경지가 아니면 설하지 못한다는

4) 『화엄경』(『大正藏』 10, p.32c), 60권본 『화엄경』에서는 「盧舍那佛品」에 해당된다. (『大正藏』 9, p.408b)

5) 『탐현기』(『大正藏』 35, p.155a)

6) 상동.

[非證不說故] 말은 바로 삼매와 깨달음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화엄경』의 삼매는 각 회에서 보살과 여래가 삼매의 경지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제2회 법회에서만 삼매에 들지 않고 나머지는 각 회에서는 모두 대표적인 삼매에 들어서 법회를 열고 있다. 제2회에서 삼매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엄은 얕은 근기에 대응하여 법이 깊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방편에 머물러 自位の 체가 없기 때문⁷⁾이라고 한다. 법장과 혜원은 제2회에서의 표한 법이 位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以所表法 未成位故]에 정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⁸⁾ 여기에 이통현은 信位에서 果法을 보인 것으로 인과를 함께 들어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 일뿐, 實證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삼매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⁹⁾ 제2회에서 삼매에 들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가운데에, 信滿成佛論이나 十信終心成佛論에 견주어 보면 화엄의 신이 단순한 얕은 법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래의 과법을 보여서 믿고 따르게 하여 因行을 성취시키려는 교법이며, 실증의 법이 아니므로 굳이 삼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통현의 설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7) 『수현기』(『大正藏』 35, p.21b-c), 一有無者 入定爲表法深 唯第二會所對機淺 法不可深故 又是住方便無自位體故 不入定 法對機位故也.

8) 『탐현기』(『大正藏』 35, p.154c-155a) 以所表法未成位故, 『화엄경문의강목』(『大正藏』 35, p.499a), 혜원은 『속화엄경간정기』(『만속장경』 제5책, 51항 右上)에서 역시 법장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9) 이통현, 『신화엄경론』(『大正藏』 36, p.752c), 何故前十信無此相等者何爲也 答曰爲信位示果法 因果同舉但令生信未有實證故不入三昧以十住之位眞實證故 以此義故須入三昧方能眞證爲與衆生成證法則故.

6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第一會 一切如來淨藏三昧	제1회 적멸도장회--보현삼매품 一切諸佛毘盧遮那如來藏身==비로자나본원력과 보현보살 행원력, 보현보살 入三昧, 제불의 마정수기
第二會 不入定==보광법당회	제2회 不入三昧 보광법당회
第三會 菩薩無量方便三昧	제3회 도리천궁회--십주품 無量方便三昧==비로자나의 왕석원력 위신력과 법혜보살의 修善根力, 법혜보살 入三昧, 제불의 마정수기
第四會 善伏三昧	제4회 아미천궁회--십행품 菩薩善思惟三昧==비로자나의 왕석원력 위신력과 諸菩薩善根力, 공덕립보살 入三昧, 제불의 마정수기
第五會 明智三昧	제5회 도솔천궁회--십회향품 菩薩智光三昧==비로자나의 왕석원력 위신력과 금강당보살의 智慧清淨과 諸菩薩善根增勝, 금강당보살 入三昧, 제불의 마정수기
第六會 大智慧光明三昧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십지품 菩薩大智慧光明三昧==비로자나의 본원력, 위신력과 금강장보살의 勝智力과 그 외, 금강장보살 入三昧, 시방제불의 마정수기
	제7회 보광법당중회--십정품 剎那際諸佛三昧==세존 마갈제국 아란야법보리장중 시성정각 보광명전, 世尊 入剎那際諸佛三昧, 以一切智自神通力現如來身清淨無礙無所依止無有攀緣住奢摩他最極清淨具大威德
第七會 佛華嚴三昧	제8회 3중보광법당회--이세간품 佛華莊嚴三昧==성취보현행원, 深心大願, 보현보살 入三昧, 從其三昧起, 答二千行門
第八會 如來師子奮迅三昧	제9회 서다림회--입법계품 獅子頻申三昧==大悲爲身大悲爲門大悲爲首以大悲法而爲方便, 世尊 入獅子頻申三昧, 入三昧已一切世間普皆嚴淨 於時此大莊嚴樓閣忽然廣博無有邊際 金剛爲地寶王覆上... 以爲嚴飾

<표1.>

이상이 각 회에서의 대표적인 삼매이다. 이처럼 각 회에서의 삼매를 설하는 것은 바로 『화엄경』은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여래의 경지를 설한 법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현삼매품』에서의 보현보살이 일체 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 시작을 의미한다.

『화엄경』에서 삼매가 처음 거론되는 『보현삼매품』에서 삼매에 들어간 보현보살은 불가사의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많은 보현보살이 화현으로 나타나서 모두 함께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처님의 힘으로 능히 도달하며, 부처님의 몸으로 일체국토의 티끌 같은 세계에 나타나서 부처님의 공덕해와 여래의 모든 원력의 바다를 드러내 보이며 일체제불의 법륜을 굴려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현보살의 능력은 바로 여래의 가피를 입고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이렇게 화현한 무수한 보현보살이 시방의 일체제불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니, 시방의 모든 여래는 한결같은 음성으로 보현보살을 칭찬한다. 그 칭찬의 핵심은 시방제불이 보현보살을 함께 가피하시는 것은 다 비로자나여래의 본원력(本願力)의 힘에 의한 것이며, 동시에 보현보살 또한 일체제불의 행원력(行願力)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 곧 여래의 본원력과 보현의 행원력이 함께 어우러진 현상이 곧 보현삼매의 경지이다.

『보현삼매품』에서 보현을 보현답게 하는 것은 곧 삼매의 힘이며, 이러한 삼매에 들어가는 힘은 바로 여래의 본원력의 가피이며, 보현보살 자신의 행원력을 수행한 결과라고 설한다. 본원력과 행원력이 어우러

10) 『화엄경』(『大正藏』 10, p.33a)

11) 『화엄경』(『大正藏』 10, p.33a), 佛子此是十方一切諸佛共加於汝 以毘盧遮那如來本願力故 亦以汝修一切諸佛行願力故. 본원력과 행원력에 대해서는 필자의 『보현행원사상에 대한 고찰』(『중앙승가대학교 논문집』 제11집, 2007), p.152.

진 경지에서 일체여래의 청정성과 지혜의 완성 등, 일체 공덕을 성취한 보현의 덕상(德相)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삼매에 머무는 보현보살에게 시방의 제불은 다시 각종의 지혜를 수여한다. 그 지혜의 깊이로는 일체 지혜 성품의 힘에 들어가는 지혜이며, 넓이로는 법계의 갓이 없음에 들어가는 지혜이다. 더 나아가서는 일체의 부처님 경계를 성취하고 우주의 성립과 괴멸(壞滅)을 아는 지혜 등이다. 이때 보현보살은 시방에 두루 몸을 나타내고 제불의 가피도 일체 보현보살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¹²⁾

시방에 화현한 보현보살이 이와 같이 제불의 지혜를 받아 지니는 것은 바로 삼매의 경지를 증득한 까닭이며 이러한 보현보살에게 시방의 제불은 각각 오른 손을 펴서 보현보살에게 이마를 어루만지는 마정수기(摩頂授記)를 한다.¹³⁾ 마정수기란 여래가 삼매의 경지에 들어서 일체지혜를 완성한 시방의 보현보살을 칭찬하는 모습이다. 마정수기를 하는 부처님의 손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며 미묘한 음성이 손에서 들린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자재 신통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장엄한 광경이 손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제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삼매에 들었고 일체 지혜를 완성하고 부처님의 인가인 마정수기를 얻은 것이다.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얻는 경우와 동일한 의미가 있다. 바로 마정수기는 삼매의 공덕이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인가를 받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고서 삼매로부터 일어난다. 여기에서도 보현보살은 여러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나서 무량한 신통묘용을 보인다. 보현보살이 삼매문에서 일어난 삼매문이란 일체세계 미진

12) 『화엄경』(『大正藏』 10, p.33a-b)

13) 『화엄경』(『大正藏』 10, p.33b)

수의 삼매문이며, 보현보살이 삼매문에서 일어날 때에 일체 보살들도 함께 우주 법계의 일체 공덕 장엄을 다 성취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보현의 입정(入定)과 삼매로부터 일어나는 수승한 공덕을 일체 보살도 함께 이익을 얻는 것이다.¹⁴⁾

『보현삼매품』의 보현보살의 입정과 출정, 곧 삼매에 들어가서 제불의 지혜를 완성하고 삼매로부터 나와서 일체 공덕을 완성함으로써 중생계와 법계와 부처님 세계가 다 함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공덕의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법회도량에 10종의 마니보배의 구름이 펼쳐지는 상서로움을 보게 된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털끝에서 광명이 발산되고 그 광명이 보현보살을 찬탄하는 계송을 설한다.

계송의 내용은 삼매에 든 보현보살이 가지가지의 신통력을 무량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는 다 비로자나여래의 願力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¹⁵⁾ 바로 보현보살의 삼매에서의 신통자재는 곧 비로자나여래의 본원력의 힘과 합일된 경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현삼매품』에서 보현보살의 삼매를 통하여 화엄의 삼매를 살펴보고, 화엄의 설법은 삼매의 경지에서 일체가 이루어지고 지혜를 완성한 단계에서 제불의 마정수기로 제불이 보살의 행원력을 인가해 줄을 알게 되었다. 『보현삼매품』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화엄경』의 시작이며 주인공인 보현보살의 등장을 삼매에 들고 일어남과 마정수기로 나타냄으로서 『화엄경』에서 삼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매가 원력과 신통과 연계되어 있는 것

14) 『화엄경』(『大正藏』 10, p.33c)

15) 『화엄경』(『大正藏』 10, pp.33c-34a), 一切刹中諸佛所 種種三昧現神通 ——神通悉周遍 十方國土無遺者 如一切刹如來所 彼刹塵中悉亦然 所現三昧神通事 毘盧遮那之願力.

은 『비로자나품』에서도 볼 수 있다. 곧 “그대가 이미 모든 원력의 바다에서 출생했고 이미 삼매의 바다에 들어가서 마땅히 종종의 대신통을 갖추니 불가사의한 제불법이다”¹⁶⁾라고 하는 경문을 보게 된다.

다시 『화엄경』 제3 도리천궁회의 『십주품』에서 법혜보살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서 無量方便三昧에 든다. 이때에도 『보현삼매품』에서와 같이 미진세계에 동일한 명호의 법혜제불이 계시고 법혜보살에게 가피한다. 이 삼매에 들 수 있는 것은 비로자나여래의 그 옛날의 원력과 위신력이며 지금 법혜보살이 수행한 선근력으로 이 삼매에 들 수 있다고 칭찬한다. 법혜보살은 이 삼매에 들어감으로서 일체 지혜와 일체 공덕을 성취하고 법혜제불로부터 마정수기를 얻는다. 그리고 법혜보살은 定으로부터 일어나서 말하기를 “보살의 주처는 광대하기가 법계허공과 동일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집에 머무는 것이 곧 보살의 주처인데, 이제 보살의 머무는 곳으로 十住를 설한다고 선언한다.¹⁷⁾

제4 아미천궁회 『십행품』에서 공덕립보살이 보살선사유삼매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삼매에 들어감으로서 부처님 지혜를 키우고, 깊이 법계에 들어가서, 중생계를 다 요달하며 일체에 걸림이 없이 무량방편을 얻고 모든 보살의 십종행법을 받기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보살의 십행법문을 설하는 것이다.¹⁸⁾ 다시 제5 도솔천궁회 『십회향품』에서 금강당보살이 보살지광삼매에 드는 것도 경위가 동일하다. 이때는 비로자나여래의 그 옛날의 원력과 위신력이며 금강당보살의 지혜청정한 까닭이며 모든 보살이 선근이 수승한 까닭으로 이 삼매에 들어가서 십회향법을 설한다고 선언한다.¹⁹⁾

16) 『화엄경』(『大正藏』 10, p.57a), 汝已出生諸願海 汝已入於三昧海 當具種種大神通 不可思議諸佛法.

17) 『화엄경』(『大正藏』 10, p.84a), 何以故此三昧力法如是故 是時諸佛各伸右手摩法慧菩薩頂 法慧菩薩即從定起 告諸菩薩言.

18) 『화엄경』(『大正藏』 10, p.102b-c)

제6 타화자재천궁회의 「십지품」에서도 금강장보살이 비로자나의 본원력, 위신력과 금강장보살의 수승한 지혜력과 그 외 금강장보살이 일체보살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범광명을 설하게 하기 위한 등등의 이유로 금강장보살이 보살대지혜광명삼매에 들어가서 시방제불의 마정수기를 받고 십지법문을 설한다.²⁰⁾ 또한 제6현전지에서 보살이 현전지에 머물면 10종삼매를 얻게 된다.²¹⁾ 그리고 제7원행지에서도 10종삼매를 얻으며,²²⁾ 이어서 제10법문지에 도달하면 전륜성왕이 직위를 받듯이 보살이 일체지를 완성하여 여래를 대신할 책무를 감당할 만한 지위라는 뜻으로 受職位라고 한다. 이 수직위에 들어간 보살이 얻는 10종삼매가 다시 설해진다.²³⁾ 그리고 특이한 이야기는 10종 삼매에 이어서 백만 이승지 삼매가 나타나고, 그 최후의 삼매인 受一切智勝職位삼매가 나타나면 그 순간 커다란 보배 연꽃이 홀연히 피어나서 삼천대천세계를 덮어버리는 장관이 일어난다. 다른 어떤 천상세계에도 없는 광경이라고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하기

19) 『화엄경』(『大正藏』 10, p.124b)

20) 『화엄경』(『大正藏』 10, p.179a)

21) 『화엄경』(『大正藏』 10, p.194c), 佛子菩薩住此現前地 得入空三昧 自性空三昧 第一義空三昧 第一空三昧 大空三昧 合空三昧 起空三昧 如實不分別空三昧 不捨離空三昧 離不離空三昧 此菩薩得如是十空三昧門爲首 百千空三昧 皆悉現前 如是十無相十無願三昧門爲首 百千無相無願三昧門 皆悉現前.

22) 『화엄경』(『大正藏』 10, p.197a), 佛子菩薩住此地 入菩薩善觀擇三昧 善擇義三昧 最勝慧三昧 分別義藏三昧 如實分別義三昧 善住堅固根三昧 智慧神通門三昧 法界業三昧 如來勝利三昧 種種義藏生死涅槃門三昧 入如是等具足大智神通門百萬三昧.

23) 『화엄경』(『大正藏』 10, p.205b), 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智慧入受職位已 卽得菩薩離垢三昧 入法界差別三昧 莊嚴道場三昧 一切種華光三昧 海藏三昧 海印三昧 虛空界廣大三昧 觀一切法自性三昧 知一切衆生心行三昧 一切佛皆現前三昧 如是等百萬阿僧祇三昧 皆現在前菩薩於此一切三昧 若入若起皆得善巧亦善了知一切三昧所作差別 其最後三昧名受一切智勝職位 此三昧現在前時 有大寶蓮華 忽然出生其華廣大量等百萬三千大千世界 以衆妙寶間錯莊嚴超過一切世間境界 出世善根之所生起 知諸法如幻性 衆行所成 恒放光明 普照法界 非諸天處之所能有.

어렵지만 연화장세계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지품』에서는 제6현전지와 제7원행지, 그리고 제10범운지에서 각각 10중삼매에 들어가서 각 보살지의 경지를 확고히 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7 보광법당중회의 『十定品』은 신역 『화엄경』에만 있는 품이다. 이 품에서는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법보리장중 보광명전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刹那際諸佛三昧에 들어간다. 세존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체 지혜로서 스스로 신통력을 삼고 여래신이 청정무애하여 의지하는 바도 없으며 반연도 없고 사마타 경지의 최상의 청정에 머물고 대위덕을 두루 갖추어 나타내기 위해서 이 刹那際諸佛三昧에 든 것이다. 그리고 세존은 때를 잃지 않고 중생에게 나타나서 다 깨달음을 얻게 하면서도 자신은 언제나 一相인 無相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²⁴⁾ 이 『十定品』에서는 제목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여래가 10중삼매를 설하고 있다.²⁵⁾

다시 제8 삼중보광법당회의 『이세간품』에서 보현보살은 佛華莊嚴三昧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현보살과 함께한 보안보살, 보화보살, 보혜보살 등 9명의 보살도 다 보현행원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없는 세계에 현신성불(現身成佛)하여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보살들의 업장도 다 소멸하고 무애청정법계에 들어가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밝힌다.²⁶⁾ 보

24) 『화엄경』(『大正藏』 10, p.211a), 爾時世尊在摩竭提國 阿蘭若法菩提場中 始成正覺於普光明殿 入刹那際諸佛三昧以一切智自神通力現如來身清淨無礙無所依止無有攀緣住奢摩他最極清淨具大威德無所染着 能令見者悉得開悟 隨宜出興不失於時恒住一相所謂無相.

25) 『화엄경』 『십정품』(『大正藏』 10, p.212c), 說此十大三昧故 令過去菩薩 已得出離現在菩薩 今得出離 未來菩薩 當得出離 何者爲十 一者普光大三昧 二者妙光大三昧 三者次第遍往諸佛國土大三昧 四者清淨深心行大三昧 五者知過去莊嚴藏大三昧 六者智光明藏大三昧 七者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 八者衆生差別身大三昧 九者法界自在大三昧 十者無礙輪大三昧.

26) 『화엄경』(『大正藏』 10, p.279b)

현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나자 보혜보살이 어떠한 것이 보살의 의지 할 바인가 등의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보현보살은 菩提心, 善知識, 善根, 波羅蜜, 一切法, 大願, 諸行, 一切菩薩, 供養諸佛, 一切如來가 보살의 의지처가 된다고 답함으로서 『이세간품』의 2천 가지의 行門이 펼쳐진다.²⁷⁾ 이 2천의 행문 중에 10종 入三昧가 있다.²⁸⁾ 이 2천의 행문은 삼매로부터 일어난 보현보살의 가르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 서다림회의 『입법계품』에서 세존은 중생을 향한 대 비심으로 으뜸을 삼아서 사자빈신삼매에 들고 무량한 불가사의 현상이 벌어진다.²⁹⁾ 이 광경을 보고 비로자나원광명보살 등 10명의 보살이 계송을 설하고 보현보살이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10종의 法句로 사자빈신삼매를 설명한다.³⁰⁾ 보현보살의 찬탄이 끝나자 세존은 모든 보살도 여래의 사자빈신삼매에 안주시키기 위하여 미간백호상으로부터 普照三世法界門이라고 하는 명칭의 대광명을 놓아서 시방의 일체 세계해의 제불국토를 비추어 나타낸다.³¹⁾

이때 서다림에 모인 모든 대중은 여래의 광명 속에 비쳐진 중중세계, 중중성명, 중중신상, 중중광명, 중중위의, 중중삼매 등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중중삼매를 설명하여 보장엄삼매로부터 관찰일체여래 해탈처사자빈신삼매까지 101삼매를 설한다.³²⁾ 또한 보살들은 이와 같

27) 『화엄경』(『大正藏』 10, p.280b)

28) 『화엄경』(『大正藏』 10, pp.285c-286a), 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入三昧 何等爲十所謂於一切世界入三昧 於一切衆生身入三昧 於一切法入三昧 見一切佛入三昧 住一切劫入三昧 從三昧起現不思議身入三昧 於一切佛身入三昧 覺悟一切衆生平等入三昧 一念中入一切菩薩三昧智入三昧 一念中以無礙智成就一切諸菩薩行願無有休息入三昧 是爲十 若諸菩薩安住其中則得一切諸佛無上善巧三昧法.

29) 『화엄경』(『大正藏』 10, p.320a), 爾時世尊知諸菩薩心之所念 大悲爲身大悲爲門大悲爲首以大悲法而爲方便 充遍虛空入獅子頻申三昧 入此三昧已一切世間普皆嚴淨 于時此大莊嚴樓閣忽然廣博無有邊際 金剛爲地寶王覆上 … 以爲嚴飾 …

30) 『화엄경』(『大正藏』 10, p.326c-327a) 사자빈신삼매를 설명한 10종의 법구

31) 『화엄경』(『大正藏』 10, p.327b)

32) 『화엄경』 60권본은 103삼매, 80권본은 101삼매, 40권본은 100삼매다.(『大正藏』

은 불가설 불찰미진수 삼매인 비로자나여래의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중만한 일체법계의 三昧神變에 들어가서 큰 지혜신통을 모두 갖추고 중생을 위하여 調御師가 된다고 경은 밝히고 있다.³³⁾ 그리고 『입법계품』에서는 1백삼매를 설하는데, 이는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수한 삼매의 표본이 된다. 다시 선재동자는 부동우바이를 친견하고 금색광명이 몸에 닿는 순간 요일체회유상삼매문, 입적정삼매문, 원리일절세간삼매문, 보안사득삼매문, 여내장삼매문 등 5백삼매문을 얻고 身心이柔軟함을 얻었다고 한다.³⁴⁾ 그런가 하면 부동우바이는 용장사자의 자리에 앉아서 구일체법무염족장염삼매문, 불공륜장염삼매문, 십력지륜현전삼매문, 불종무진장삼매문 등의 1만삼매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선재동자에게 법을 설하는 광경이 펼쳐진다.³⁵⁾ 『입법계품』에는 명칭이 나열되어 있는 1백삼매와 선재동자가 얻은 5백삼매, 그리고 부동우바이가 들어간 1만삼매 등이 거론되고 있다.

2. 해인삼매의 위상

『화엄경』을 대표하는 삼매는 「현수품」과 「십지품」에 등장하는 해인삼매를 대표격으로 본다. 우선 『화엄경』 이전에 다른 경전에서의 해인삼매를 살펴보자. 해인삼매는 사전에 의하면 *Sāgara mudrā samādhi*로 표기하고 있다.³⁶⁾ 곧 그 뜻은 “일체 사물이 거울 중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佛心 중에 지혜의 힘으로 삼라만상이 일시에 나타나는 삼매”

9, pp.684b-685a; 『大正藏』 10, pp.327c-328c; 『大正藏』 pp.672a-673a).

33) 『화엄경』(『大正藏』 10, 328c)

34) 『화엄경』(『大正藏』 10, 358b) 5백삼매 중 경문에서는 了一切希有相三昧門, 入寂靜三昧門, 遠離一切世間三昧門, 普眼捨得三昧門, 如來藏三昧門 등 5삼매문만 들고 있다.

35) 『화엄경』(『大正藏』 10, p.359b)

36) 中村元, 『佛教語大辭典(東京書籍)(1983), p.168

라는 의미이다. 해인삼매는 『화엄경』 이외의 경전에서도 보인다. 먼저 『大乘悲分陀利經』 「장엄품」에 海印三昧는 능히 모든 삼매를 섭수하는 것이 大海水와 같다³⁷⁾고 하며, 『大般若經』 「삼마지품」에는 ‘어떠한 것을 이름하여 제법을 등취하는 해인삼매라 하는가? 이 삼매에 머물 때에 모든 수승한 삼매가 다 취입함이 마치 대해에 중류를 인접함과 같으므로 제법등취해인삼매라고 이름한다’³⁸⁾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大寶積經』 被甲莊嚴會에 해인삼매를 거론하고³⁹⁾ 있다. 『大方等大集經』 「허공장품」에도 보살이 해인삼매를 얻음으로서 일체 중생의 心行의 나아갈 바를 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⁴⁰⁾

다시 『화엄경』에 돌아와서 「현수품」에서는 여래가 중생들을 위하여 깨달음의 모습을 보이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가지가지의 몸과 행업과 음성을 나타내는 것은 해인삼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량없는 세계에서 국토를 장엄하고 일체 제불을 공경예배하며 6바라밀 등 모든 공덕을 닦아서 자재한 불가사의 공덕을 지어가는 것은 화엄삼매의 힘이라고 강조한다.⁴¹⁾ 그리고 「십지품」에서는 10종 삼매 중 하나로서 해인삼매를 들고 있다.⁴²⁾ 따라서 해인삼매를 대표 삼매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수품」에서 화엄삼매와 함께 해인

37) 『大乘悲分陀利經』 「莊嚴品」(『大正藏』 3, p.278b)

38) 『大般若經』(『大正藏』 7, p.75a), 三摩地品, 云何名為諸法等趣海印三摩地 謂若住此三摩地時 令諸勝定等皆趣入 如大海印攝受衆流 是故名爲諸法等趣海印三摩地.

39) 『大寶積經』 被甲莊嚴會(『大正藏』 11, p.114c; p.141a)

40) 『大方等大集經』 「虛空藏品」(『大正藏』 13, p.106b-c), 菩薩亦復如是得大海印三昧 已能分別見一切衆生心行 於一切法門皆得慧命 是爲菩薩得 海印三昧 見一切衆生心行所趣.

41) 『화엄경』(『大正藏』 10, pp.73c-74a)

42) 『화엄경』 入法界差別三昧, 莊嚴道場三昧, 一切種華光三昧(雨一切世間華光三昧, 『大正藏』 9, p.571c); 海藏三昧, 海印三昧, 虛空廣三昧, 觀察一切法性三昧, 隨一切衆生心行三昧, 一切佛皆現前三昧(如實知一切法三昧, 『大正藏』 9, p.571c); 得如來智信三昧(『大正藏』 10, p.205b). 여기에서 해인삼매는 *Sāgara samādhiś ca nāma*로 표기되어 있다.(*Daśabhūmikāsūtra*, Johannes Rahder, 1926, p.82 B)

삼매가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⁴³⁾ 또한 『如來出現品(性起品)』에도 해인이라는 명칭을 볼 수 있다.⁴⁴⁾

지엄(602~668)은 그의 『孔目章』에서 일승의 동교와 별교는 해인정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말한다.⁴⁵⁾ 지엄이 말하는 동교와 별교는 그의 화엄교관의 핵심이 되는 교의이다. 동교와 별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근본 토양을 그는 해인삼매에서 찾으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화엄교학에 있어서 해인삼매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의상(625~702)의 『華嚴一乘法界圖』라고 본다. 의상은 왜 法界圖印으로 표현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도인으로 표현한 것은 ‘석가여래의 가르침이 3종세간을 총섭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며, 이는 다 해인삼매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⁴⁶⁾ 또한 印에 대한 설명은 ‘대해가 매우 깊고 맑아서 제석천과 이수라가 싸울 때에 일체 사물이 대해 중에 다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삼종세간이 해인삼매에 다 나타난다.’고 설명한다.⁴⁷⁾

그리고 이를 이어서 범장(643~712)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오교장』) 제1에 석가여래의 가르침을 ‘해인삼매 일승교의’라고 정의하였

43) 『현수보살품』 或有利土無有佛 於彼示現成正覺 … 隨諸衆生若干身 無量行業皆音聲 一切示現無有余 海印三昧勢力故(『大正藏』 9, p.434c, 10, p.73c); 不可思議莊嚴刹恭敬供養一切佛 … 施戒忍辱精進禪 方便智慧諸功德 一切自在難思議 華嚴三昧勢力故(『大正藏』 9, p.434c; 10, p.74a)

44) 『如來出現品(性起品)』에도 해인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正覺了知一切法 無二離二 悉平等 自性清淨如虛空 我與非我不分別如海印現衆生身 以此說其爲大海 菩提普印諸心行 是故說名爲正覺(『大正藏』 10, p.275c; 9, p.627b)

45) 『공목장』(『大正藏』 45, p.586b), 一乘同教別教依海印定起.

46) 의상 『화엄일승법계도』(『大正藏』 45, p.711a), 問 何以故依印 答 欲表釋迦如來教網所攝三種世間 從海印三昧掣出顯現故.

47) 상동, 印者約喻得名 何者 是大海極深 明淨徹底 天帝共阿修羅鬪爭時 一切兵衆一切兵具 於中顯現了了分明 如印顯文字 故名海印 能入三昧 亦復如是 窮證法性 無有源底 以究竟清淨 湛然明白 三種世間 於中顯現 名曰海印(『大正藏』 45, p.712c-a); 『탐현기』(『大正藏』 35, p.189a)

고,⁴⁸⁾ 다시 『華嚴經文義綱目』의 제8소의삼매 중에서 총삼매와 별삼매를 들고, 총삼매는 「현수품」의 해인삼매이며 별삼매는 각 회의 삼매라고 밝힌 것 등이 해인삼매의 대표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⁴⁹⁾ 또한 『탐현기』 玄談에서 제5능전교체 중 10門을 열고, 제9해인병현문에서 「현수보살품」의 경문인 ‘一切示現無有餘 海印三昧勢力故’를 인용하여 해인삼매를 강조하고 있다.⁵⁰⁾ 그리고 「현수보살품」을 해석하면서 信의 大用의 無碍함을 10三昧門의 業用으로 설하기도 하였다.⁵¹⁾ 법장은 해인을 설명하여 이수라가 공중에서 싸우면 그 모습이 대해에 모두 비추듯이 보살의 定心이 마치 대해와 같아서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중생의 마음 마음을 다 아는 것과 같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⁵²⁾ 『華嚴遊心法界記』에서는 화엄삼매를 因에, 해인삼매를 果에 대응시키기도 한다.⁵³⁾ 또한 『화엄오교지관』에서는 제5 화엄삼매문을 거명하고 법계연기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⁵⁴⁾ 『망진환원관』에서는 해인삼라상주용이라는 명칭을 들고 해인은 진여본각이라고 설명한다. 망상이 다하고 마

48) 『화엄일승교의분제장』(『大正藏』 45, p.477a), 今將開釋如來(今將開釋迦佛) 海印三昧 一乘教義 略作十門(괄호 안은 和本)

49) 『화엄경문의강호』(『大正藏』 35, p.498c) 第八所依三昧에서, 總者 然此八會人法教義等 皆依如來海印三昧之所顯現故 賢首品云 一切示現無有餘海印 三昧勢力故 二別顯者 第一會一切如來淨藏三昧 ….

50) 『탐현기』(『大正藏』 35, p.119c)

51) 상동, 10종삼매는 圓明海印三昧門, 華嚴妙行三昧門, 因陀羅網三昧門, 手出廣供三昧門 現諸法門三昧門, 四攝攝生三昧門, 窮同世間三昧門, 毛光覺照三昧門, 主伴嚴麗三昧門, 寂用無涯三昧門(『大正藏』 35, p.188c)이다.

52) 상동, 海印者從喻爲名 如修羅四兵 列在空中 於大海內印現其像 菩薩定心猶如大海 應機現異如彼兵像故 大集經第十四云 喻如閻浮提 一切衆生身及餘外色 如是等色海中皆有印像 以是故名大海印 菩薩亦復如是 得大海印三昧 已能分別見一切衆生心行於一切法門皆得慧明是爲菩薩得海印三昧見一切衆生心行所趣(『大正藏』 35, p.189a)

53) 『화엄유심법계기』(『大正藏』 45, p.646b), 言華嚴三昧者 解云 華者菩薩萬行也 華有生實之用 行有感果之能...按華嚴經云 一切自在難思議華嚴三昧勢力故...此解行爲言名爲華嚴三昧 如其據果亦名海印三昧 此卽同時前後爲名.

54) 『화엄오교지관』(『大正藏』 45, p.512b)

음이 맑아지면 바다에 온갖 모양이 다 뚜렷이 나타나듯이 무량공덕장인 법성진여의 바다가 바로 해인삼매라고 설한다.⁵⁵⁾ 이통현은『신화엄경론』에서 三禪天에서의 설법으로 제11지에 『보현불화삼매품』을 보충해서 40품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⁵⁶⁾

Ⅲ. 『화엄경』과 깨달음

1. 화엄교학에서의 깨달음

『화엄경』 『여래현상품』에 ‘일체삼매에 안주해서 미래 겁이 다하도록 항상 제불의 무변법계의 공덕해신과 내지 삼매해탈과 신통변화를 다 본다’고 한다.⁵⁷⁾ 삼매에 안주하여 여래의 무진공덕과 신통변화를 보는 것은 곧 삼매와 깨달음의 경지를 함께 이어주는 경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래의 정각에 대해서 『화엄경』은 4곳에서 始成正覺, 또는 成道未久 第二七日의 경문이 나온다.⁵⁸⁾ 이는 곧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오래지 않아서 이 『화엄경』을 설했다는 의미로 중요시되어 왔다. 이때에 부처님은 화신인 석가세존을 생각하게 한다. 『화엄경』에서의 불신관은 3신이 곧 10신이라는 주장이 강함을 밝힌 바 있다.⁵⁹⁾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여래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살이나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가에 대한 『화엄경』에서의 탐

55) 『망진환원관』(『大正藏』 45, p.637b)

56) 『신화엄경론』(『大正藏』 36, p.738c)

57) 『화엄경』 『여래현상품』(『大正藏』 10, p.30a)

58) 80권본 『화엄경』 『세주묘엄품』(『大正藏』 10, p.1b), 『여래명호품』(『大正藏』 10 p.57c), 『십정품』(『大正藏』 10 p.211a), 그리고 시라달마역본의 『佛說十地經』(『大正藏』 10, p.535a)

59) 본각,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불교사상과 문화』 1, 2009), p.72

구를 시작해 본다. ‘깨달음’이란 주제는 성불론과 이어진다고 봄으로 먼저 화엄교학에 등장하는 각종의 성불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엄은 『화엄오십요문답』에서 『이세간품』의 10불에 의지해서 일승과 삼승과 소승의 見佛과 名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소승교에서는 32상을 갖춘 색신불을 보는 것이고, 삼승의 견불은 불신은 색에 즉하여 공함을 보는 것으로 무성이며 거래가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일승의 견불은 무착불 등의 10불의 경지를 들고 있다. 또한 3신불은 삼승의 불신론이고, 소승은 생신불과 화신불이라고 말한다.⁶⁰⁾ 또한 소승의 성불은 1인성불이며 삼승의 성불은 시방에서 동시 타처성불이 가능하다. 일승의 성불은 염념성불로서 성불하는 위치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온 중생계가 동일연기법으로 전후가 없다고 한다.⁶¹⁾

지엄의 염념성불의는 곧 일념성불로 이어진다. 소승교는 3아승지겁의 성불론을 주장하고 일승교는 성불하는 시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념성불을 말한다.⁶²⁾ 일념성불이란 곧 무분별 진여의 경지에서 말하는 것이며, 일념은 곧 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승에 의하면 十信終心⁶³⁾과 내지 十解, 十行, 十廻向, 十地, 佛地 등 어느位에서도 성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⁶⁴⁾ 지엄은 신만성불도 거론한다. 十信에서의 作佛과 十地終心에서의 作佛이 어떻게 다른가를 묻고

60) 『화엄오십요문답』(『大正藏』 45, p.519b), 依一乘教見聞已去 乃至會知無生相及應十數見 其十佛一無著佛 安住世間成正覺故 二願佛 出生故 三業報佛 信故 四持佛 隨順故 五涅槃佛 永度故 六法界佛 無處不至故 七心佛 安住故 八三昧佛 無量無著故 九性佛 決定故 十如意佛 普覆故名爲見佛.

61) 상동(『大正藏』 45, p.519c)

62) 상동

63) 지엄은 십신중심의 성불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일승의 경지에서는 십신중심에 일체의 願을 구축한다고도 주장한다.(『공목장』, 『大正藏』 45, p.563b) 또한 信位終心에서 如來壽命의 自在無限을 얻는다고도 말한다. “若約一乘即法界自在辨命此義通十地 若約別教信位終心即得.”(p.576c)

64) 『공목장』(『大正藏』 45, p.561a)

서 이에 대한 답으로 十信作佛을 설하지 않고 十地終心만의 작불을 논한다면 이는 삼승교의 설며, 일승원교는 五位나 九位 등을 나누지 않고 作佛을 논한다고 답함으로서 信滿成佛을 용인하고 있다.⁶⁵⁾ 지엄은 이와 같이 일승의 성불에 있어서 位階에 따른 어떠한 제한적인 견해를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화엄경』의 전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역시 단계적 경지를 도입한 시발인 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화엄경』의 三分과 五分五周說이다. 지엄은 『수현기』에서 『화엄경』 전체를 三分으로 나누어서 『세간정안품』에서 『여래광명각품』까지 舉果勸樂生信分이라 하여 信位로 삼았고, 『보살명난품』에서 『이세간품』 전까지를 修因契果生解分이라 하여 解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세간품』과 『입법계품』을 依緣修行成德分이라 하여 行과 證을 배대하고 있다.⁶⁶⁾ 범장은 스승의 이 설을 더 부연하여 五分 五周 因果說로 발전시켜서 『화엄경』 전체를 신, 해, 행, 증의 전개과정으로 완성하였다.⁶⁷⁾ 이 견해를 통하여 화엄의 성불론을 位階를 무시하고 일념, 또는 신만성불을 논함과 동시에 신, 해, 행, 증이라고 하는 단계별 수행결과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證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과정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점진적이든 간에 믿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信 그 자체로 성불에 이를 수도 있지만, 믿음이 뿌리가 되어 결국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엄의 성불론은 일찍이 선학에 의해서 논구되어 왔다.⁶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화엄경』과 관련 해석서에 의해서 논의된 성불론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엄교학을 일승교학이

65) 『화엄오십요문답』(『大正藏』 45, p.521a)

66) 『수현기』(『大正藏』 35, p.19c)

67) 『담현기』(『大正藏』 35, p.125b)

68)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春秋社, 1977), pp.572-592; 吉津宜英, 『華嚴禪の思想史的研究』(大東出版社, 1985), pp.67-112

라 하여 일승의 성불은 위에서 거론한 信滿成佛과 一念成佛, 疾得成佛, 速疾成佛, 舊來成佛, 本來成佛, 舊來同佛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면 먼저 신만성불과 일념, 질득, 속질과 구래, 본래, 구래 동불로 묶을 수 있다. 一念, 疾得, 速疾을 살펴보면 一念成佛은 지엄이 『공목장』에서 『입법계품』 미륵보살의 경문에 의지해서 제불보살이 무량겁에 수행한 것을 선재동자는 일생에 다 얻었다는 설에⁶⁹⁾ 의지해서 『화엄경』의 疾得成佛을 5종으로 들고 있다.⁷⁰⁾ 이 중 제3 一時疾得成佛은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만나고 일시에 보현법을 얻는 것이며, 제4 一念疾得成佛은 보현법에契合하여 일념에 곧 성불하는 것으로 이 둘은 俗諦念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5 無念疾得成佛은 一切法の 不生不滅을 깨닫는 것으로 바로 眞佛을 보게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一乘法에 있어서는 일체 중생이 함께 同時에 성불한다는 뜻으로 同時를 10번 거듭함으로서 동시 성불을 강조하고 있다.⁷¹⁾

다음에 舊來成佛, 本來成佛, 舊來同佛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자. 이 뜻은 보살과 중생이 이제 비로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엄의 말을 빌리면 修生으로 성불을 얻는 것이 아니라, 本有의 경지인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보와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믿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이다. 이는 본래성불, 또는 舊來성불론에 대응된다. 중생이 본래 부처인

69) 『입법계품』(『大正藏』 10, p.442a-b)에 “善財童子又見自身 在普賢身內 … 善財童子則次第得普賢菩薩諸行願海 與普賢等與諸佛等 一身充滿一切世界 刹等行等正覺等神通等法輪等辯才等言辭等音聲等力無畏等佛所住等大慈悲等 不可思議解脫自在悉皆同等”의 경문이 곧 선재가 일생에 불과를 성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70) 『공목장』(『大正藏』 45, p.585c), 見登의 『華嚴一乘成佛妙義』(『大正藏』 45, p.790c)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

71) 『공목장』(『大正藏』 45, p.586c), 一乘法義 成佛共一切衆生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同時成佛 後後後後後後後後後後皆新斷惑亦佛住學地而成正覺也.

것은 『화엄경』뿐만 아니라 여러 경전에서도 설해지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화엄경』에서 心과 佛과 衆生이 차별이 없다는 동질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 문제를 ‘화엄의 信’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여래출현품』에 보살행이 곧 여래성이며, 여래성이 곧 보살행이다⁷²⁾라는 글귀를 본다. 이는 보살행을 통한 여래성, 곧 불성의 개발을 주안점으로 들고 있다. 경전에서는 보살행 그대로가 여래성의 현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래가 무장애한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법계의 일체중생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미 여래의 지혜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감탄하는 경문이 있다.⁷³⁾ 이 대목은 신만성불과 구래성불 사상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경에서 말하는 여래와 진리에 대하여 믿음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고 각자 自心の 생각 속에 부처님의 成正覺이 그대로 항상 갖추어져 있음을 믿고 확인하는 것이 곧 구래성불 사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⁷⁴⁾ 따라서 보살의 수행이 성숙되었을 때 비로소 여래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불과 동질인 자신을 확고히 하는 보살행 속에 이미 여래성의 현현을 보게 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 구래성불사상을 확립시키고 중요시한 사람은 의상이다. 의상이 중용하는 數十錢法 역시 1과 10은 이미 상호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실상은 부증불감이며 본래부동인 것이다.⁷⁵⁾ 의상은 舊來不動은 곧 舊來佛義라고 하여 『이세간품』의 10불을 들고 있다.⁷⁶⁾

72) 『화엄경』(『大正藏』 10, p.272a)

73) 『화엄경』 『여래출현품』(『大正藏』 10, p.272c)

74) 『화엄경』(『大正藏』 10, p.275b), 佛子 菩薩摩訶薩 應知 自心念念常有佛成正覺 何以故 諸佛如來 不離此心成正覺故 如自心 一切衆生亦復如是.

75) 『화엄일승법계도』(『大正藏』 45, p.714b)

76) 상동(p.714a)

2 『화엄경』에서의 깨달음

학자들에 의해서 거론되어 온 깨달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다. 이제 『화엄경』 자체에 의지해서 다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심성이 되어야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깨달음에 나아가는 데에는 여래의 본원력에 근본한 마정수기, 가피력, 위신력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각 회처에서 보살이 여래의 위신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고 불가사의한 경계를 보게 되며, 여래의 찬탄과 마정수기를 받고서 법을 설하는 장면이 많이 보인다. 이는 곧 깨달음에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래의 가피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지엄이 말한 三分說에서 舉果勸樂生信分은 여래의 거룩한 果業에 대하여 여래의 과업을 받아 지니려는 환희심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래의 경지에 나아가는 첫 관문으로 예경제불이 중요한 수행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바로 여래에 대한 신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둘째는 여래와 법에 대한 믿음, 곧信的 확립이다. 『여래출현품』에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여래를 보지 못한다⁷⁷⁾는 경문과 같이 여래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여래를 본다는 것은 바로 『화엄경』의 見佛 사상이고, 여래를 만나는 것은 곧 깨달음에 나아가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뜻은 『현수품』에 信能必道如來地⁷⁸⁾라는 경문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화엄경』의 信은 信解(adhi-mukti)가 근본이 된다.⁷⁹⁾ 이 信解를 통하여 보살이 여래의 법 가운데에 불퇴전의 경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믿음의 중요성은 『법행품』

77) 『화엄경』(『大正藏』 10, p.266b), 無信眼故不見諸佛.

78) 『화엄경』(『大正藏』 10, p.72b)

79) 본각, 『화엄경 중 信의 용례에 대한 고찰』(『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제1집, 2002), p.398

의 初發心時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⁸⁰⁾가 중요시되고 智慧의 몸을 성취하는 데에는 바로 자신의 發心の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위에서 본 信滿成佛 사상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믿음이 확립되면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법계를 바라보게 되고 불찰미진수의 세계로 시야가 확대된다.

세 번째는 善用其心の 문제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써서 무량한 공덕을 두루 갖추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경문으로는 『정행품』이 그 대표적이다.⁸¹⁾ 智首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身口意 三業으로 짓는 허물을 막고 지혜와 공덕을 갖추어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수보살은 善用其心하면 곧 일체 勝妙功德을 다 얻는다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한다. 그리고 이 마음 잘 쓰는 방법을 140가지로⁸²⁾ 가르쳐준 것이 바로 『정행품』이다. 이 한 마음을 잘 씀으로 해서 지혜를 얻고 공덕을 갖추어서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用心의 문제는 『화엄경』의 唯心사상으로 이어진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주체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화엄의 유심론이 중시되고 있다. 이 마음이 중생이 되고 이 마음이 여래가 되는 이치이다. 『아마천궁게찬품』에 각림보살의 계송에서 마음과 여래와 중생이 동질임을 밝히고, 이 마음이 일체를 만들어 내는 오묘함을 노래한다.⁸³⁾ 또한 『십지품』 제6현전지의 삼계유심사상은 법계 연기의 근간이 되어 왔다.⁸⁴⁾

네 번째는 解行具足の 문제이다.⁸⁵⁾ 『화엄경』의 전 과정은 보살이

80) 『화엄경』(『大正藏』 10, p.89a)

81) 『화엄경』(『大正藏』 10, p.69c)

82) 60권본 『화엄경』에는 140, 80권본 『화엄경』에는 141가지이다.

83) 『화엄경』 『아마천궁게찬품』(『大正藏』 10, p.102a)

84) 『화엄경』 『십지품』(『大正藏』 10, p.194a)

85) 『수현기』의 십현문에 敎義, 理事, 解行, 因果, 人法, 分齊境界, 師弟法智, 主伴依正, 逆順體用自在, 隨生根欲示現 등의 십구족을 들고 있다.(『大正藏』 35, p.15a); 淨行品

佛地에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곧 해행의 구족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지엄은 해행을 중요시하였고⁸⁶⁾, 의상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⁸⁷⁾ 법장은 『화엄오교장』에서 佛果에 오르는 화엄의 수행계위를 셋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成見聞位는 화엄의 무진법문을 견문하고 금강의 종자를 성취하는 지위로 성기품의 설과 같다고 한다. 두 번째 成解行位는 도솔천자등이 십지 무생법인을 얻는 경지이며, 선재동자가 십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생의 일신상에 보현의 행위를 다 성취하는 지위라고 한다. 마지막 證果海位는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당래에 자신이 성불할 때에 너도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등의 경지를 나누고 있다.⁸⁸⁾ 이 세 지위는 화엄의 법문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견문에서 시작하여 해행을 거쳐서 과해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화엄삼보장』에서는 先解後行이라고 하여 먼저 여래의 설한 바를 철저히 앎으로서 모든 소견을 떨쳐버리고 무념의 경지에서 正行을 실천하게 된다고 한다.⁸⁹⁾

법장의 『유심법계기』와 『오교지관』을 대비해본 바에 의하면⁹⁰⁾ 제5 법계무애문과⁹¹⁾ 제5 화엄삼매문이⁹²⁾ 대응된다. 법장은 해행이 곧 화엄삼매라고 하면서⁹³⁾ 『유심법계기』에서 이 화엄삼매방편에 들어가기

依解成行(p.28a); 依解起行也(p.37a); 解相別知行即通成故也(p.37b); 觀解行解(p.50a); 觀解清淨 行證契眞(p.53a); 十平等法有二種意一解境二行境(p.60c, p.64b-c) 등.

86) 『수현기』, 『화엄오십요문답』, 普賢廣大解行法(『大正藏』 45, p.528c), 行知識解知識(『大正藏』 45, p.532a); 『공목장』 解唯識行唯識(『大正藏』 45, p.547b)

87) 『화엄일승법계도』(『大正藏』 45, p.715c)

88) 『화엄오교장』(『大正藏』 45, p.489c)

89) 『화엄삼보장』(『大正藏』 45, p.619c)

90) 陳永裕(1995),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 pp.176-188

91) 『유심법계기』(『大正藏』 45, p.646b)

92) 『오교지관』(『大正藏』 45, p.512b-c)

93) 『유심법계기』(『大正藏』 45, p.646b), 此解行爲言名爲華嚴三昧 如其據果亦名海印三昧.

위해서는 2문이 있는데 해와 행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해에 2문으로 연기상유문과 이성유통문(법성유통문)을 들고 있다.⁹⁴⁾ 이는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행이 확립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다시 해에 법장교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상유와 법성유통을 결부시키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행구족은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임을 알 수 있다.

3. 법계연기의 깨달음

이상의 화엄교의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엄의 깨달음은 법계연기를 온전히 체득할 때 진정한 화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향포문과 원융문의 문제가 거론된다. 향포문으로 화엄의 성불을 논한다면 解行 중에 행경의 과정을 거쳐서 보살계위를 빠짐없이 밟아 올라가고 일체행을 닦아 완성하여 행경의 십불을 얻는 것이다. 화엄의 보살계위인 40위를 밟아 올라가서 비로소 성불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원융문으로 화엄의 성불을 논한다면 일념성불, 무념성불의 경지이며 계위에 관계없이 초발심의 경지에서 바로 정각을 성취하여 해경의 십불을 얻게 된다. 이는 無住, 無盡의 경지이며 相即相入하는 원융무애의 경지를 말한다. 이는 곧 법계연기론의 성불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⁹⁵⁾

94) 상동, 總而言之不過二門 一者解二者行 就前門中復有二門 一者緣起相由門二者理性融通門(『大正藏』 45, p.646c). 또한 법장은 『탐현기』에서 일체법이 서로 연관되어 결립이 없는 이치를 열 가지로 설명한 가운데 첫 번째가 緣起相由이고 두 번째가 法性融通이다.(『大正藏』 35, p.124a)

95) 화엄교학에서 성불을 논할 때에 해행구족, 향포원융, 상즉상입, 동체이체, 일즉다즉일 등의 모든 이론은 결국 원융무애로 귀결된다. 이는 체에 있어서는 無住이며 작용에 있어서는 無盡이며 곧 법계연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법계연기를 바로 체달할 때 화엄의 성불에 도달할 것이다.

법계연기는 『화엄경』에 전개되고 있는 無盡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지엄이 처음 『수현기』에서 법계연기를 거론한 것은 단순히 범부의 染法과 菩提의 淨分이 법계에 무한한 緣起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⁹⁶⁾ 이렇게 시작한 법계연기는 지엄을 시작으로 의상과 법장을 거치면서 무궁무진한 교의를 담게 되었다. 지엄의 『화엄오십요문답』에서 法界를 강조하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법계연기가 중용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⁹⁷⁾

법장은 『화엄의해백문』에서 연기와 입법계를 각각 밝히고 있다. 하나의 티끌이 自心을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기이며 이 현상이 일체법과 중중 무진으로 전개되는 것이 입법계라고 한다.⁹⁸⁾ 곧 법계연기는 자심과 일체법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 둘이 서로 무궁무진한 관계를 연출하는 광경이다. 또한 『화엄삼보장』의 법계연기장에서 법계연기는 제석천의 보배그물망처럼 원융하고 자재무진해서 이름을 붙이기 어렵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기상유문과 법성유통문과 연성쌍현문과 이사분무문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이 4문은 곧 법계연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⁹⁹⁾ 이 중에서도 단연 처음 1과 2문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법장은 『탐현기』에서나 『화엄삼보장』

96) 『수현기』(『大正藏』 35, p.62c)

97) 『화엄오십요문답』 若據實理一切緣起不離法界(『大正藏』 45, p.522c), 與法界等, 或卽一乘 應法界故(p.523c), 一乘不相應義名數與法界等 理亦無窮如法界也(p.524a), 由此法門應法界性無邊用故(p.524c) 등. 이 밖에 여러 곳에서 화엄의 차별과 제한을 넘어선 교의를 모두 법계에 상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목장』에서도 一乘卽 法界無爲(『大正藏』 45, p.542c), 由法自在故 與法界義同(p.552a), 通一切法於一切法 無有差別此名卽是法界 此法界以通一切法 不分別一切義爲相 或說名無分別境(p.559c)

98) 『화엄경의해백문』(『大正藏』 45, 627b)

99) 『화엄삼보장』(『大正藏』 45, p.620a), 夫法界緣起爲礙容持 如帝網該羅 若天珠交涉圓融自在無盡難名 略以四門指陳其要 一緣起相由門 二法性融通門 三緣性雙顯門 四理事分無門 初緣起相由門者 於中曲有三門 一諸緣互異門 卽異體也 二諸緣互應門 卽同體也 三應異無礙門 卽雙辨同異也.

에서 항상 연기상유만을 설명하고 있다.¹⁰⁰⁾

법계연기는 곧 원용무애를 의미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유력과 무력, 동체와 이체, 상입과 상즉, 체와 용의 무애, 일과 다의 원용 등, 모든 대립 개념을 통합한 경지를 법계연기라고 이름하고 있다. 일체제법은 상호 원용하여 어느 것에도 막힘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재 무애하다는 이치를 설하는 것이 곧 법계연기이다. 특별히 법계연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연기 현상에 대해서 용통과 원용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중생의 업은 제법의 원용무애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에 일체의 번뇌와 고통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고 자재무애의 경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의 경지이다. 화엄은 이 경지를 열어 보이기 위해서 무진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 다함없는 진리의 세계를 화엄조사들은 법계연기로서 명명했다. 초기경전에서는 법계는 아주 단순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여,¹⁰¹⁾ 화엄교학에 이르러서 그 의미가 극대화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법계에 연기를 함성함으로서 법계연기의 무진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법장은 그의 『화엄오교장』의 마지막 제10 義理分齊章에서 법계연기 무애법문은 果證으로는 심불의 自境界이며, 隨緣의 因分에서는 보현의 경계라고 한다.¹⁰²⁾ 따라서 법계연기는 인과와 심불과 보현이 무애원용한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비유로 밝힌 것이 數十錢法이다. 十이 원용과 전체를 의미한다면 一은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공존함으로서 전체와 부분이 온전히 十錢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이치이다. 곧 법계연기의 성불론이란 이러한 중중무진으로 연기하는 제법의 모양을 空相으로 인지하

100) 『담현기』(『大正藏』 35, p.125a); 『화엄삼보장』(『大正藏』 45, p.620c)

101) 본각, 『화엄교학의 법계의의 고찰』(『중앙승가대학교논문집』 제7집, 1998), pp.94-96

102) 『화엄오교장』(『大正藏』 45, p.503a)

여 어느 하나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실상을 깨닫는 경지이다. 그리고 그 법계연기는 다름 아닌, 현상적으로는 緣起相由의 모습이고 근본적으로는 法性融通의 세계이다. 이 둘이 항상 정체되지 않고 원융무애한 경지가 법계연기이며, 이 이치를 간파해서 인연에 따라 두루 하데,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¹⁰³⁾ 곧 법계연기의 삶이며, 깨달음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계연기의 깨달음은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나 해인삼매와 같은 출입자재하고 매우 포괄적인 삼매의 경지에서 보다 깊이 체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매와 깨달음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끝맺는 말

본 논문을 마감하면서 삼매와 깨달음의 관계를 논해야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일체제불비로자나여래장신삼매를 시작으로 하는 각 회의 근본 삼매와 보현삼매를 시작으로 각 품에서의 부수적인 삼매를 모두 살펴보았다. 화엄의 십불의 자경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현행원의 수행력을 완성해야 하는데 삼매의 경지는 행원을 성취시키는 근본 토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래의 본원력과 위신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가고, 보살은 삼매를 통하여 여래와 교감을 갖고 여래의 대자비와 여래의神通력이 그대로 보살의 행원 속에 옮겨지

103) 『화엄경』 「여래현상품」(『大正藏』 10, p.30a), “佛身充滿於法界 普現一切衆生前 隨緣赴感靡不周 而恒處此菩提座”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동요됨이 없이 완벽하게 법계에 충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곧 법계연기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기 때문이다. 삼매력 속에 보살과 여래가 동일한 경지에 있게 되고, 불가사의한 세계가 전개되며 보살은 마정수기를 얻고 여래를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능력을 얻는다. 곧 삼매 속에서 여래의 경지를 경험하고 불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성취하게 된다.

다음에 이러한 삼매를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 현상으로 돌아와서 여래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 실천의 과정이 향포문으로, 또는 원용문으로 전개되는 것이 『화엄경』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신만성불을 시작으로 一念成佛, 疾得成佛, 速疾成佛, 舊來成佛, 本來成佛, 舊來同佛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불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화엄경』에서 여래의 위신력과 가피, 확고한 신심의 중요성, 신구의 3업을 밝힘, 수행자의 해행구족 등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화엄의 온전한 깨달음은 바로 법계연기를 정확히 깨닫는 것임을 밝혔다. 법계연기의 깨달음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그대로 차별 없이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 그대로를 진리로서 완성해 가는 보살도를 의미한다. 이 법계연기의 깨달음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너와 나의 경지도 아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진리를 구현하고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일체가 여래의 경지에 함께 들어가게 됨을 『화엄경』에서 중중무진으로 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재동자가 보현의 몸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보현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Daśabhūmikasūtra (Johannes Rahder, 1926, p.82 B)

80권본 『華嚴經』(『大正藏』 10)

60권본 『華嚴經』(『大正藏』 9)

40권본 『華嚴經』(『大正藏』 10)

『大乘悲分陀利經』(『大正藏』 3)

『大般若波羅蜜多經』(『大正藏』 5)

『大般若經』 『三摩地品』(『大正藏』 7)

『法華經』(『大正藏』 9)

『大寶積經』(『大正藏』 11)

『涅槃經』(『大正藏』 12)

『大方等大集經』(『大正藏』 13)

『華嚴五教止觀』(『大正藏』 45)

『華嚴經搜玄記』(『大正藏』 35)

『華嚴孔目章』(『大正藏』 45)

『華嚴五十要問答』(『大正藏』 45)

『華嚴一乘法界圖』(『大正藏』 45)

『華嚴一乘成佛妙義』(『大正藏』 45)

『華嚴經探玄記』(『大正藏』 35)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 45)

『華嚴經文義綱目』(『大正藏』 35)

『華嚴遊心法界記』(『大正藏』 45)

『華嚴妄盡還源觀』(『大正藏』 45)

『華嚴三寶章』(『大正藏』 45)

『華嚴經義海百門』(『大正藏』 45)

『續華嚴經刊定記』(『만속장경』 5)

『新華嚴經論』(『大正藏』 36)

高峰了州, 『華嚴論集』, 國書刊行會, 1976.

中村元, 『佛教語大辭典(東京書籍)』, 1983.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春秋社, 1977.

吉津宜英, 『華嚴禪の思想史的研究』, 大東出版社, 1985.

陳永裕,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 1995.

本覺, 「華嚴教學의 法界義의 고찰」, 『중앙승가대학교논문집』 제7집, 1998.

_____, 「華嚴經 중 信의 用例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문집』 제1집, 2002.

_____, 「보현행원사상에 대한 고찰」, 『중앙승가대학교 논문집』 제11집, 2007.

[Abstract]

Samādhi and Enlightenment in the Avataṃsaka Sūtra

Ven. Bon Gak(Jin, Young-you)

The theme of this paper is samādhi and enlightenment in the *Avataṃsaka Sūtra*. First of all, I examined each samādhi to explore its relationship with enlightenment in the Huayan school. In addition, I also looked into the doctrine of attaining Buddhahood in the theory of the Huayan school and the matter of enlightenment in the Buddhist scriptures. As for samādhi, I studied both the foundational samādhi in each assembly (hoe 會) and the supplemental samādhi in each chapter, starting from the samādhi of all Buddha, Variocana and, Tatagatha in the assembly place where a Buddha attains the truth of nirvāṇa (寂滅道場會). I revealed that the vow and practice of Samantabhadra must be completed to reach self-awakening in Ten Buddha of the Huayan school. The state of samādhi is the foundation for fulfilling the vow and practice. That is because the state of samādhi can be achieved with the dignity and insights of Buddha and a Bodhisattva can be in communion with Buddha through samādhi. In other words, under the state of samādhi, a Bodhisattva can

experience the spiritual realm of the Buddha and establish a firm belief toward the Buddhist world.

Once experiencing such a state of samādhi, a Bodhisattva needs to get back to the real world and practice for the awakening like the enlightenment of the Buddha. The process of practice means the awakening process in the Huayan theory, such as the perfect intercommunion gate. With regard to this, I examined the theories of attaining Buddhahood in the Huayan school, starting from Shin-man-seong-bul (信滿成佛) and followed by Il-nyeom-seong-bul (一念成佛), Jil-deuk-seong-bul (疾得成佛), and to Gu-rae-seong-bul (舊來成佛). In addition, through these theories of becoming the Buddha, I point out the importance that the practitioner needs to be satisfied with Tātāgatha's vow and practice in the *Avataṃsaka Sūtra*, firm belief, the illumination of three karmas of body, and harmonization of wisdom and practice for awakening. Consequently, the perfect awakening in the Huayan school is nothing but Dharmadhātu Pratītyasamutpada. The awakening through Dharmadhātu Pratītyasamutpada means that the practitioner can accept all phenomena as suchness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is the bodhisattva's path for the practitioner to act on his own way. The awakening of Dharmadhātu Pratītyasamutpada is neither starting nor ending, nor distinction between you and me. It is the process of realization that everyone can share everything and pursue the truth and finally be awakened to the fact that everyone is in the spiritual stages of the Tātāgatha. As a result, every practitioner can realize that Sudhana (善財) is within the body of Samantabhadra (普賢) and accompanies Samantabhadra.

Key Words: *the Avataṃsaka Sūtra*, Samādhi, Enlightenment, Theories

of Attaining Buddhahood in the Huayan School, Dharmadhatu
Pratityasamutpada.

본각(진영유)은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이다. 저서로는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1995)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澄觀の華嚴觀法に關する文獻の考察」(1997), 「華嚴教學의 法界義의 고찰」(1999), 「相即論의 思想史的一考察」(2000), 「『華嚴經』의 放光의 解釋と李通玄の特徵」(2009), 「『華嚴經』의 세계성취와 Stephen Hawking의 宇宙論」(2011) 등이 있다.

[2011.10.31. 투고; 2011.12.16. 수정; 2011.12.18. 채택]

